

이슈 파견



입영 연기 끝에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실형 확정

法 “계속 입영연기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죄질 불량”

입대 시점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으로 기소된 정모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총기소지가 양심에 반해 입영하지 않았다며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가 이 사건 전까지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씨는 계속해 입영을 연기해왔고 이 사건에 이르

러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비폭력주의자로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병역법 88조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해남 건설업체 '불법 자행'...행정기관 농락 일삼아

토사 등 인허가 없이 무단 방치...원상복구 명령도 무시 불법 건축물까지 버젓이 지어 치외법권지대(?) 의심 사

해남의 한 업체가 토사와 토석을 인·허가 없이 무단 방치, 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끈적도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으면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농지에 불법 건축물까지 버젓이 짓고 있어 행정기관을 농락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이 업체는 해남읍 고도리 18번지 외 6필지 면적 11,819㎡ 농지에 토사, 토석을 인허가 없이 무단 방치한 지 오래다. 따라서 해남군청 농정과는 수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해남군 마산면 소재 작업체는 전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농지법 제 42조 원상 복구 명령과,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용도 변경승인 위반 법조문 제 58조(벌칙) 제 2호, 제 36조 제 1항(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제 40조 제 1항(용도 변경승인) 처벌대상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용된 농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처벌

농지법 57조 5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업체는 동종의 불법행위로 벌금을 받은 사실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번 문제의 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모든 건축 업체가 귀감으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위반사항에 대해 면허취소는 당연하고 농지법 관련 법정최고의 형벌을 주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청 농정과 담당자는 "농지에 남아 있는 토사, 토석의



양이 많아 원상복구까지는 한 달 넘게 걸릴 거라면서 바로 고발 조치하여 불법으로 짓고 있는 건축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서명환 기자

“모범운전자 신호지시 어기면 벌점·범칙금 부과?”

모범운전자 신호 따를 의무 있지만 직접 부과는 못해



광주 남구 대남대로에 붙은 현수막.

‘모범운전자 신호지시 어기면 벌점과 범칙금?’ 최근 광주의 주요 도로에 ‘낮선’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24일 광주 남구 대남대로에는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를 어기면 벌점 15점과 신호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된다’는 현수

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을 내건 주체는 ‘광주 남부경찰서’와 ‘남부모범운전자회’다. 시민들은 경찰관이 아닌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를 어기면 벌칙금이 부과된다는 문구에 고개를 가우뚱한다. 남구에서 만난 김모씨(56)는 “모범운전자는 사실상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는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말을 처음 듣는다”며 “현수막 문구가 잘못 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모범운전자는 신호지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벌점이 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모범운전자회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조항을 근거로 설립 가능하고 선발과 운용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무사고운전자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 전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모범운전자’들로 구성하며 실제활동은 ‘자원봉사’에 가깝다. 11월 기준 광주의 모범운전자 수는 1600여명이다. 이들은 한 달에 4번 이상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와 운전자 경찰, 자치경찰, 의무경찰, 그리고 경찰보조자의 신호나 지시에 따

를 의무가 있다. 모범운전자는 헌병, 소방공무원과 함께 경찰보조자에 해당해 이들의 수신호를 무시하면 신호위반이 된다. 다만 모범운전자는 직접 범칙금을 부과할 권한은 없다. 지시에 불응하는 모습을 찍어 고발하면 경찰이 부과한다. 흥기주 광주 남부모범운전자회장은 “대부분 운전자가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를 무시하고, 육살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현수막을 건 것이지, 실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대남대로에서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극심하다. 흥 회장은 “예전에는 ‘나부터 가야 한다’ 식의 막무가내 운전자가 많았는데 현수막 설치 후 질서가 조금씩 잡혀간다”며 “모범운전자들이 원활한 교통을 위해 봉사활동 개념으로 교통정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운전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화 이글스 김성훈 사망 미스터리

“왜 병원 옥상에 올라갔을까?”

한화 이글스의 투수 김성훈(21)이 9층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성훈은 전날 오전 5시10분 쯤 광주 서구의 한 건물 9층에서 7층으로 추락했다. 김성훈은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김성훈이 홀로 병원 옥상을 찾았고, 9층에서 발을 잘못 디며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마치 담을 타듯이 옥상 난간을 넘어가려다가 곧바로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김성훈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옥상 난간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앞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유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훈은 지난 22일 마무리 캠프를 마친 뒤 부모님이 있는 광주를 찾았다. 그는 사고 직전 광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해당 건물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다”며 “왜 혼자 병원을 찾았는지, 누구랑 술을 마시고 이곳에 오게 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잠신중-경기고를 졸업한 김성훈은 2017년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한화에 입단했다. 김민호 KIA 타이거즈 코치의 아들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조기발견, 자폐치료 중인 민척군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7일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